

<다 고쳐요! 달퐁 병원> 독서 활동지



 이 책은요...

달퐁 선생님이 운영하는 곤충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
기발한 상상과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그림책이에요.

 이 책을 통해...

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요.



주제어

생명, 존중, 환경, 성실

누리과정

의사소통 - 책과 이야기 즐기기

자연탐구 - 자연과 더불어 살기



- 이 책의 제목은 <다 고쳐요! 달퐁 병원>이에요. 제목만 듣고, 어떤 병원일지 상상해 보세요.
무엇을 고치는 곳일까요? 누가 의사고, 누가 환자일까요?

의사

환자

- 표지에는 길을 걷는 개미들과 뒤따라 가는 새 한마리가 보여요.
어떤 상황인지 추리해 보세요.





- 대개 '사건'을 정리하는 글을 쓸 때 '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'를 밝혀야 해요. 이를 '육하원칙'이라고 하지요. 여러분이 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개미 부부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설명해보아요.

개미 부부가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

- 갸갸이는 엄마 아빠가 다쳐 몹시 당황했어요. 주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마냥 울기만 했을 거예요. 갸갸이가 병원에 오기까지 어떤 도움들을 받았는지 말해 보아요.

.....

.....





- 달풍 병원 원장님은 "다치는 곤충이 하나도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!"라고 말했어요.
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아요.

- 갸갸이와 개미 부부에게 퇴원 축하 카드를 예쁘게 꾸며서 보내 주세요.

